

보도시점 2026.10.20.(화) 14:45
< 10.21.(수) 조간 >

배포 2026. 10. 20.(화)

한-체코, 원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논의

- 양국 산업부 장관 주재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 개최 -
- 두코바니 사업 추진현황 점검, 원전 관련 EU 산업가속화법안 대응 등 논의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0일(화) 카렐 하블리체크(Karel Havlí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Dukovany Steering Committee)」*를 개최(화상회의)하여,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전협력 강화와 원전 관련 EU 산업가속화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양국 정부와 체측 발주사(EDUⅡ), 韓 공급사(한수원) 간 두코바니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2월 발족·1차 회의 개최, '26.6월 2차 회의 개최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양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하며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검토했다. 또한 두코바니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양국의 원전업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체코측에 '26.3월 발표된 EU 산업가속화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비EU 국가의 EU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EU 내 원전 공급망이 약화된 상황에서 체코 등 EU 내 원전 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한국과 같이 우수한 공급망을 갖춘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체코의 원전 협력이 첨단산업 등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중에 EU 산업가속화법안이 양국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코가 EU 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제4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는 연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그 계기 한-체코 양국 원전업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간 행사 개최를 병행하여 의미있는 성과가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금번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에서 체코정부가 추진 여부를 검토중인 테플린 3·4호기에 대해 “체코의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대형원전이 필요할 것이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플린 3·4호기에서도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양국간 원전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담당 부서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44-203-52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정 (044-203-5286)

